

14개 核心先導기술 개발착수

科技處 금년도 事業계획 업무보고

우수과학기술자에 功勞年金 지급도

科技處는 2001년까지 특정분야에서 세계일류수준의 독창적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출한 14개 核心 先導기술 개발과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과기처 3백60억원 등 정부 1천2백10억원과 민간 8백90억원 등 총 2천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科技處는 1월28일 상오 盧泰愚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선도기술의 본격적 개발착수 = 초고집적반도체·고선명TV·전기자동차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별 중장기 시행계획을 5월중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연구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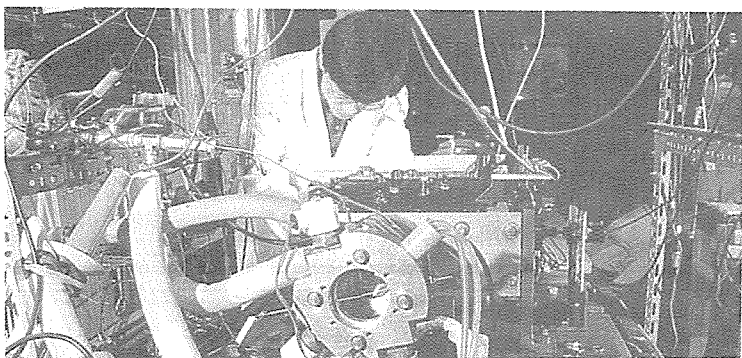
최대 당면과제인 對日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 모든 재원을 핵심기계류부품 및 소재기술자립에 집중 지원한다.

◇과학기술투자 확대 = 96년까지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증대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

대를 위해 93년 투자액수를 정부가 설정, 권고하며 7월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개발주식회사의 일부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단을 설치한다.

◇과학기술활동의 국제화 = 을 상반기중 韓·美과학기술공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확보 = 대학의 기초과학연구기금 1천1백35억원으로 확대, 釜山·大邱·光州에 기초과학지원센터 지역분소를 설치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분원에 석사 2백명, 박사 1백명의 「산·학제 및 연구원과정」을 설치하며 95년 개교할 光州과학기술원 건설공사를 금년부터 착수한다.

◇연구개발 의욕의 고취와 협동연구개발체제 강화 = 우수업적을 낸 과학기술자들에게 공로연금을 지급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관운영책임제·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연구기관간 연구원 교류권고제도를 시행하고 기술

동위원회를 개최, 하반기부터 합의과제별로 공동연구에 들어가며 「韓·美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추진 및 과학기술포럼을 서울서 개최한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48개 기초·첨단기술의 국내 실용화를 위해 항공기복합소재설계기술 등 5~6개과제는 금년중에 가시화하고 10개과제는 새로 추진하며 러시아 우수과학자 80여명을 유치한다.

韓民族 과학기술자공동체를 결성, 금년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在露·在中科協에도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세계주요거점 지역에 최신과학기술정보수집망을 구축한다.

韓·美 科技특허협정 체결

李외무-그레그 美대사 정식서명

6천만弗규모 財團설립추진

韓·美 양국은 1월6일 과학 기술협력협정(STA)과 특허비밀 보호협정(PSA)을 체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확대정상회담에서 李相玉의무 부장관과 그레그駐韓美대사간에 이들 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양국간 과학기술정보교환 및 과학자, 기술자교류는 물론 공동연구사업의 실시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등 과학기술분야의 협력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문과 함께 총 11조로 구성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앞으로 5년간 한미양국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교류, 정보교류, 공동연구수행 등을 규정하는 한편 양국 장관급을 수석대표로한 과학기술공동상설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했다. 매 2년마다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이 위원회는 중장기협력정책조정, 협력사업선정, 실적평가등을 수행함으로써 양국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용도기술의 보호, 발명권의 권리배분, 기업비밀정보 보호등 개정 과학기술협정의 핵심내용은 2개의 부속서중 첫번째 부속서 「지적재산권」부분에 규정됐다. 부속서는 특히 ▲과

학기술자의 교류에 의해 발생한 발명의 경우 과학기술협력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나라가 자국과 제3국 등에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정보교환에 의한 경우는 발명을 행한 나라가 권리를 보유하며 ▲공동연구사업에 의한 발명의 경우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 상호합의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미양국 협력의 「호혜」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韓·美양국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재체결을 계기로 반도체·인공지능컴퓨터·전기자동차·고선명TV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나라는 韓·美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韓·美 양국이 각각 매년 1천만달러씩을 출자해 총 6천만달러 규모로 추진될 韓·美과학기술개발재단은 △공동연구개발사업 △美國연구개발기관 및 교포 과학기술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개발투자 △양국과학기술자 또는 기업의 합작투자 및 모험기업투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와 관련,오는 3월 첫 韓·美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한미전략기술동맹을 위한 중점협력분야를 협의하고 과학기술전문가들의 韓·美과학기술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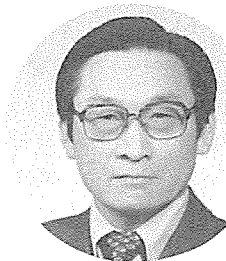
韓·美과학기술협력협정은 지난 76년에 체결돼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토대를 이루어왔으나 88년 10월 협정유효기간 만료후 美측이 PSA체결, 지적재산권 조항추가등을 이유로 연장을 거부,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체결된 것이다.

신임교육부 장관에

趙完圭박사 선임

盧泰愚대통령은 1월22일 후기대입시시험지 도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尹亨燮교육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趙完圭 前서울대총장(64)을 임명했다.

◇趙장관약력 △大田출신 △서울대 생물학과졸(이학박사) △서울대 동물학과교수 △서울대



총장 △科總회장 △유전공학술협의회회장 △생산기술연구원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교육개혁심의위원

사회전체에 科技혁신의지 확산다짐

科總, 과학기술인 新年조찬회 開催

鄭元植국무총리·金鎭炫 장관·金鍾仁 경제수석등 4백여명 참석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10일 상오7시 호텔롯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鄭元植국무총리를 초청, 1992년도 과학기술인신년조찬회를 개최했다.

閔寬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金鎭炫 과기처장관 등 관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조찬회는 李傑三 사무차장의 사회로 鄭助英 회장 직무대행의 主要人事 소개에 이어 閔寬植 명예회장의 開會인사, 鄭元植 총리의 격려인사로 진행됐다.

閔寬植 명예회장은 이날 開會인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대외경쟁력 배양만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방법』이라고 전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閔 명예회장은 이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연구와 혁신의 자세를 갖고 기술개발과 과학진흥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체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우리도 2천년대 선진복지사회의 진입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



◇ 鄭元植국무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科總주최 新年조찬회에는 4백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신한다』고 말하고 『백만과학기술인의 구심체인 科總은 올해에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적지위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범과학기술계 대표로 구성된 「南北民間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의 각종 사업을 民間차원에서 더욱 활성화시키고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1만명 이상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을 한데 묶어서 「세계 韓民族과학기술자공동체」를 결성토록 할 것』

임을 밝혔다.

이어서 鄭元植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組立·加工 등 일부 생산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지만 設計·素材분야 등 산업의 기반과 핵심이 되는 기술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뚜렷한 固有技術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21세기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선진 G7圈에 진입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의 가능한 자원과 인력을 특정분

야의 과학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하여 그 효과를 모든 분야로 광범위하게 과급시켜나가는 戰略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또 『정부는 2001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연구개발인력도 16만명선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히고 『96년까지 900여개 생산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난해 말 선정된 14개 핵심선도기술을 집중개발하여 2000년까지는 이 분야에 관한한 세계 일류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과학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연간 3만편이 넘는 국제수준의 논문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선진국과는 물론 南北間의 과학기술교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金鍾仁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吳明'93大田EXPO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李應善 趙庚穆 金鎭載 李鍾贊 陳在勳의원 등 國會의원 다수, 金基衡 李正五 李寬 安京模 崔順達 朴

肯植 鄭根謨씨 등 前職장관 趙完圭한국과학재단이사장 徐燾 珏학술원회장 朴泰源인하대 명예총장 李海成한양대총장 金浩吉포항공대학장 朴源燾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 학계·연구기관대표와 鄭然世대한토목학회회장 등 科總산하회원단체장 徐廷旭차관 朴辰好기획관리실장 張洙瑛기술진흥국장 權甲澤 기술협력국장 등 과기처관계관, 丁明植포항종합제철(주)사장 姜晉求삼성전자대표이사 金相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문변호사에 金斗鉉씨
科總 법률자문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본연합회 고문변호사로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金斗鉉씨(66세, 세계법률가협회 아세아지역협회장)를 추대했다. 金斗鉉변호사는 고려대법대 재학중 48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제7대), 국제법률가협회장, 한국법학원장 등을 역임

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법률고문, 한미교육문화재단이사

장, 한국합동법률사무소대표로 재직중이다.

「放射性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科總서 건의문 발표

韓國과학기술단체총합회는 1월26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원자력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집약,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관계당국 및 사회각계에 건의했다.

科總은 이 건의문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원동력인 전력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도 처분장은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건의문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부지선정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설설치와 당위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연구시설과 주택등을 현장에 건립, 국민적 신뢰를 구축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찬·반주장의 자유롭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근거 및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동이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의문

현재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科學技術文明社會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科學文明은 우리 人類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사용주체인 인간의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 해결의 일익을 담당할 책임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자력은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하여 건강진단, 암치료, 식품보존, 비파괴검사 등 의료, 농업, 공업, 첨단기술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나 혜택에도 부산물로서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분,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이용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시책에 대한 일부 國民階層의 불신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원자력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放射性廢棄物處分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마찰과 지역이 기주의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안전성을 중심으로 「放射性廢棄物 管理施設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국민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관계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의 원동력인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電源의 多元化는 꼭 필요한 것이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에너지보존, 깨끗한 환경, 경제성, 첨단기술개발 등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1. 原子力利用에 따른 부산물인 放射性廢棄物의 관리는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서 이것을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處分場이 필연적으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1.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美國, 英國, 프랑스, 스웨덴, 日本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영구보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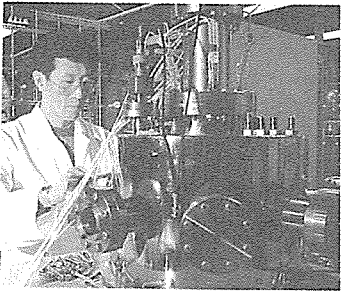
체에 전혀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기술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선정, 건설 및 운영에 따르는 제반 주요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선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주민으로부터 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체에 해가 없음이 가시화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연구원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시설이나 주택등을 현장에 건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적신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원자력에 대한 찬·반주장은 자유롭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선동을 하거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오도해서는 안됩니다.
1. 차체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원자력이 보다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에 공헌함으로써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科技투자 GNP의 3.5% 확대

科技부문 7차 5개년계획 확정

政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에 과학기술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컴퓨터등 14개 핵심선도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월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7차 과학기술부문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원을 조성, 활용하고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연계대학정원을 연 4천명씩 증원하는 한편 해외고급과학두뇌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과학자의 해외연수도 현재 2백명에서 96년에는 7백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忠南 大德연구단지조성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짓고 光州, 釜山, 大邱, 全州, 江陵지역에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를 건설

키로 했다.

神經網컴퓨터 개발

電子通信研 기초기술부

순수국내기술로 神經網칩이 개발된데 이어 이를 이용한 컴퓨터가 국내기술진에 의해 처음으로 제작에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초기술연구부 신경망연구팀(팀장 金明源)은 지난해 11월 개발한 신

경망칩을 이용, 신경망컴퓨터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MIND로 명명된 이 컴퓨터는 신경칩 36개를 격자형태로 연결해 신경망보드를 구성한 뒤 이를 다시 퍼스널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계산속도는 2천5백만 CPS로 기존 PC보다 40~50배 빠르며 필기체숫자를 초당 20~30개(인식을 98.6%) 인식한다.

또 디지털계산방식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어가 용이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경망의 장점인 학습기능을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다.

海洋조사선 「온누리호」건조 완료

15일 노르웨이 출발... 지중해 거쳐 仁川에

韓國海洋연구소(소장 朴炳權)가 추진해온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건조가 완료됨에 따라 1월11일 건조사인 노르웨이의 칼손조선소에서 인수 및 명명식을 갖고 15일 우리나라를 향해 시험항해의 장도에 올랐다.

온누리호는 OECF차관 41억 엔으로 지난 87년부터 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 4년만에 완성을 보게된 것으로 주요제원은 길이 63.8m 폭 12m에 1천3백톤급으로 20명의 연구원과 21명의 선원을 태울수 있다. 또 중력계·탄성파 측정기·지진 연구장비·어군탐지기 등 첨단 해양조사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해양연구소는 이번 온누리호의 시험항해기간(63일간) 동안 온누리호에 설치된 각종 조사장비들을 종합적으로 성능시험하기 위해 2차례의 해양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해양지구물리연구실 石奉出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연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1차조사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포르투갈 지브롤터에 이르는 대서양 공해에서 대서양형 해저지형의 발달양식을 규명하고, 2차로 싱가포르에서 仁川에 이르는 동안 해저광상과 생물군집분포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프라자」 문열어

韓國通信, 國產 56종 위탁판매

국산컴퓨터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아 전시 판매하는 종합소프트웨어 유통센터인 「소프트웨어 프라자」가 서울용산 전자상가내에 문을 열었다.

한국통신은 1월22일 서울용산 전자월드빌딩에서 李海旭사장을 비롯, 鄭弘植제신부 정보통신국장, 申允植(주)데이콤사장, 李龍兗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등 관련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프라자」의 개관식을 가졌다.

모두 40억원의 건립비가 투입된 이 센터는 총 7백40평 규모로 유통센터코너, 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 소프트웨어구매상담코너 등을 84개 관련업체로부터 게임용 소프트웨어등 국산소프트웨어 5백60종 6천여종을 위탁 판매하게 된다.

評價技術研 개관

大宇전자, 富平연구소에

大宇電子(대표 裴洵勳)는 국내 가전업계 처음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장률을 낮추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술연구소를 富平중앙연구소내에 설립, 1월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연구소는 가전제품의 신뢰성 및 품질평가 외에도 외래어 표기의 한글표시 표준화작업과 알기쉬운 사용설명서의

제작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10년이상 사용했을 때 예측되는 고장률을 짧은 기간내에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는 평가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폐기물버너 開發

유생하이테크, 세계 최초로

완전연소가 가능한 폐기물버너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다.

유생하이테크(대표 이대성) 연구팀은 가연성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버너를 개발, 연소시범을 통해 거의 완벽한 정도의 완전 연소를 연출하였다.

가연성 폐기물버너란 페타이어·폐고무류·폐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공업용버너와 같이 고온 대량의 화염을 생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발명·개발된 것인데, 유생하이테크연구팀은 페타이어를 연소시키면서도 불완전연소가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폐기물버너는 특히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각종 유해가스도 배출되지 못하도록 수처리를 통해 액화 함침시키는 샤워터널시스템이 도입됐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클린에어만을 배출시킬 수 있음을 역시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쓰레기중 폐고무류·페타이어·폐유등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大德綜合研 기공식

三星그룹, 계열8社공동연구

三星그룹은 1월14일 大德연구단지에서 崔寬植 三星 重工業회장, 朴基錫 三星 綜建회장 등 그룹임직원 및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德綜合研究所」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起工된 大德종합연구소는 21세기 첨단기술의 복합화와 시스템화에 대비, 電子機械化學분야의 8개社가 참여하여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단지내 연구기관과도 연계하여 미래 유망기술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三星그룹은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총 3천억원을 투입, 11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4만7천여평 규모의 건물과 최신연구설비를 갖추고 2만7천명의 고급두뇌가 집결된 세계적인 종합연구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로 7백억원을 들여 6천평 규모의 化學 重工業 분야 연구소를 완공하고 연차적으로 航空, 宇宙, 情報通信, 環境, 精密, 化學연구소를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예방의학회

大韓豫防醫學會(회장 崔三燮)는 지난해 10월31일~11월2일 3일간 광주에 위치한 무등산오천관광호텔에서 제43차 추계학술대회 및 9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崔三燮교수(이화여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라이스터교수(미국, UCLA대학)의 「미국에 있어서의 의사급여 조정」과 가마치박사(일본, 오사카 공중보건위생원)의 「일본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단위로한 고혈압관리 경험」등 2편의 초청강연과 金貞順교수(서울대)의 「한국민의 고혈압 유병률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등 6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朴正漢교수(경북대)의 「대구시내 국민학교 놀이터의 안전성 조사」등 16편의 논문이 포스터 전시됐다.

대한한 의사협회

大韓漢醫師協會(회장 安鶴洙)는 지난해 11월22일 여의도 중

소기업회관에서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安鶴洙현회장을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徐冠錫원장(동계한의원)과 金湧信원장(경성한의원)을 각각 선임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약사의 한약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경주키로 하는 한편 韓醫協속원사업인 한약전편찬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92년도에는 4천 만원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韓國航空宇宙學會(회장 盧五鉉)는 지난해 11월2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9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 2년의 새회장에 盧五鉉교수(서울대)를, 부회장에 柳常新교수(한국항공대)와 洪昌善교수(한국과학기술원)를 선출했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칼-하인즈 스테너씨(독일, Aerospace : DAS)의 「2,000년대 미래 헬리콥터를 위한 설계개념」과 일반발표로 金承祚교수(서울대)의 1명의 「유한요소 프로그램에 의한 각종 컴퓨터들의 수치연산 성능비교」를 비롯 黃在赫교수(항공대)의 「Nonclassically Damped Linear System의 근사해의 오차한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閔庚鐸교수(인천대)의 1명의 「거대요소기법

을 이용한 비행기 구조해석연구」등 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정밀공학회

韓國精密工學會(회장 南宮垢)는 지난해 11월16일 한국과학기술원 홍능분원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임기의 새회장에 南宮垢교수(충남대)와 부회장에 宋地復교수(부산대)를 유임시켰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강으로 姜哲熙박사(세일중공업 기술고문)의 「FMS의 개발」과 일반논문으로 柳盛元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의 2명의 「분말 소결 알루미늄 합금의 반복하중에 의한 미시균열 연구」를 비롯 崔萬鎔실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3명의 「와이어 인발가공에 있어서 AE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曹圭甲교수(부산대)의 1명의 「치구계획의 자동화시스템 개발」등 3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동학회의 금년 사업계획을 보면, 학회지를 연4회 발간하고 학술행사로 9월24~25일 양일간 KOEX 국제회의실에서 Fine Ceramics 성형 및 가공기술에 관한 韓·日합동심포지움과 춘·추계학술대회를 비롯 정밀가공 및 계측제어부문과 자동차 및 생산시스템부문 기술세미나를 5·9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科總회원단체간 공동학술행사계획일정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주 관 학 회	참 여 학 회
과학의달 기념 간호학 종합학술대회	4. 24	서울대학교	대한간호학회	대한간호협회 외
제2회 통신정보합동학술대회	4. 24-25	내장산관광호텔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대사조절 및 대사공학에 관한 심포지움	4. 24-26	유전공학연구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수중환경과 수질관리 심포지움	4. 25	충남대학교	한국육수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
의학분야의 학문적발전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학술회의	5. 15	연세대학교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외
산업재해 방지방안과 생산성제고 학술회의	5. 30	한양대학교	한국공업경영학회	한국창조공학회
대학교양과학교육의 현황과 개선책에 관한 심포지움	5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외
제2차 축산분야종합학술대회	6월	설악산	한국축산학회	한국낙농학회 외
경관조성의 생태적접근과 조경설계 학술회의	7. 22-23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외
제34회 수공학연구발표회	7월	조선대학교	한국수문학회	대한토목학회 외
전기방전 및 전자재료 학술회의	7월	서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대한전기학회 외
난분해성 물질의 생분해에 관한 공동심포지움	8. 21-22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국산업미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
식물분류학의 현대적 재조명에 관한 학술회의	8월	미 정	한국조류학회	한국식물학회 외
장단기유출해석 방법의 정립에 관한 학술회의	9월	한국농지개발연구소	한국농공학회	한국수문학회
제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회의	10. 8-9	고려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인지과학회
농업과학심포지움	10. 9	농촌진흥청	한국가금학회	한국농업과학협회 외
생물과학심포지움	10. 23-24	서울대학교	한국동물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외
양어사료에 관한 공동심포지움	10. 23-24	군산대학교	한국수산학회	한국수산해양과학협회 외
발효유제품생산균의 유전학에 관한 공동학술회의	10. 23-24	서울대학교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국제어업환경의 변화와 최신어업기술의 개발전망 심포지움	10. 23-24	부산수산대학교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수산학회 외
환경오염과 관리방안에 관한 세미나	10. 31	서울대보건대학원	한국환경위생학회	대한보건협회 외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수송에 관한 학술회의	11월	서울대학교	한국기상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

在外韓國과학기술자협회 現況

1992. 1.24. 현재

기 관 명	대 표 자 (직 장)	창립일	주 소	전화번호
		회원수		FAX번호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韓 茂 榮 Dr. Moo Young, Han (Duke Univ.)	'71.12.11	6261 Executive Blvd., Rockville, MD 20852, U.S.A	(301)984-7048
		7,500		(301)984-1231

과학기술계뉴스

기관명	대표자 (직장)	창립일	주소	전화번호	
		회원수		FAX번호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張 甲 淳 (東海大 教授)	'83.10.22	テ160 東京都 新宿區 新宿2丁目7-3 ウェラハイシ 新宿御苑605號	(03)3358-9040	
		1,200	Vella Heights 605 2-7-3 Shinjuku, shinjuku, Tokyo 160, Japan	(03)3358-4829	
캐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文 光 順 Dr. Kwang Soon, Moon (CANMET CANADA Rese- arch Scientist)	'86.11.29	KCSE 20 Mobile Drive, Toronto, Ontario M4A 1H9	(416)775-7446	
		500	CANADA C/O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 ciation	(416)755-7850	
재구한국과학기술자협회	吳 榮 錫 Dr. Young-Sok, O(Rhone Poulenc연구소)	'75.6.1	KSEAE 16 rue du Boulevard F-69100 Villeurbanne	(33)7894-6308	
		1,240	France	(33)7894-0076	
재 구 과 연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	서 성 기 Dr. Seong Gi, Seo(Univ. of New Castle 연구원)	'74.11.1	1 Somerton Court Ouseburn Park Newcastle upon Tyne NE3 2QZ	(091)271-1475
					270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吳 榮 錫 Dr. Young-Sok, O(Rhone Poulenc 연구소)	'76.1.31	Dr. O, Young-Sok 16 rue du Boulevard F-69100 Villeurbanne	(33)7894-6308
					170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李 健 治 Dipl. Ing, Kun-Chi, Lee	'73.5.6	Dipl.-Ing, Lee-Kun-Chi Im Sachsenhausen 1 D-6101 Bickenbach, Ger- many	(06257) 1619
					800
재중국한국과학기술자협회 (중국조선족과학자협회)	(이사장) 姜 貴 吉 (연변대학화학과교수)	'89.7.21	中國 吉林省 延吉市 進學街 團結路 231號	(0433)519952	
				1,050	(86)433-521601
재소고려인과학기술협회	박 게오르기 (World Media Co. 부대 표)	'91.7.8	World Media Co. Yaroslavskoe Shosse, 144 Moscow, 129347, USSR	(095)188-9847	
				1,000	(095)188-9783

과총회원단체 2월중 학술행사 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한국지반공학회	김 상 규	"굴착 및 흙막이 공법"에 관한 강습회	18-21	고려대 이공대학 과학도서관
대한수학회	김 종 식	대수기하학 관련분야 국제심포지움	11-13	인하대학교
한국통계학회	박 성 현	신뢰성 기법 개발과 실무적용에 관한 워크숍	12-13	서울대 호암생활관
한국영양사료학회	이 영 철	'92년도 영양사료기술 세미나	14	축협중앙회
한국임학회	이 여 하	'9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 발표회	14-15	임업연구원 소회의실
대한교통학회	임 강 원	정기총회 및 21회 학술발표회	15	교통안전회관 3F 도로교통안전협 회

과학기술계뉴스

한국분자생물학회

韓國分子生物學會(회장 朴相大)는 금년도 학술사업으로 2월 13~15일 3일간 수안보파크호텔에서 회원 및 회원가적이 참가하는 Winter Conference를 시작으로 하여 춘계학술대회와 10월 23~24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韓·美국제공동심포지움으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9월 23~3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韓·獨학술대회에 참가하고 韓·日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13~15일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릴 제2회 아시아유전자전사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발간사업으로 학술지 및 뉴스지를 연4회 발행하고 도서출판으로 「분자생물학 교재」와 「분자생물학 용어집」 그리고 시리즈 문고판으로 「분자생물학 총서류」를 중점 추진하고 「분자생물학 실험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고 시리즈 문고판으로 「분자생물학 총서류」를 중점추진하고 「분자생물학 실험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물리학회

韓國物理學會(회장 李柱天)는 올해로 창립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물리학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창립40주년 기념행사로는 10월에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물리학 홍보용잡지인 「물리학과 첨단기술」(가칭)을 계간지로 창간하고, 응용물리분야 학술지를 연4회에서 격월간으로 2회 증간하며, 대학일반물리실험교재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화학공학회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는 韓國化學工學會(회장 李漢周)는 다양한 창립기념행사 준비와 함께, 금년에는 보다 내실을 기하고 산업계 化工人の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창립기념행사로 오는 4월 19~20일 한양대학교에서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와 같이 특별강연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미국의 Amundson교수를 초청해 「화학공업의 새로운 Paradigm」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화학공업」(제2판)은 10년전에 나온 초판이 現화학공업의 현황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어 3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20개국 240개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회 서울국제화학플랜트 전시회를 오는 4월 16~20일 5일간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화학공업기술의 보급 증진은 물론 국내외 화학기기 및 장치의 비교전시를 통한 최신정보교환 및 신기술이전 기회제공, 플랜트 수출증대 및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도등을 목적으로 열리게 된다.

한편 동학회는 산업계 化工人の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화학공업과 기술」誌의 내용도 산업계 독자들을 위주로의 편집체제로 이끌어 나가고 학회행사를 통해 산업계 회원들의 최신기술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의 場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회장 金源)는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대만·일본도시계획학회와의 국제세미나 및 유네스코와 주택정보시스템관련 지역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학회지를 연4회, 도시정보뉴스레터를 연12회, 학술논문집을 연5회 각각 발간하고 학술발표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는 한편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사업으로 도시정보지 특별회원 확대와 현정국토개발상 기금관리운영 및 시상 그리고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